

화순행 버스 발포...시민 17명 영문도 모른채 참변

33년전 그날엔... 되돌아 보는 5·18

계엄군, 무차별 총격 가해 부상 2명은 뒷산 끌고가 총살 일부 시신 대검 찢린 흔적도

<5> 23일 주남마을 학살

5·18 민중항쟁 발발 43년째 1980년 5월 23일 오후 2시에 광주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인근 도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18명의 승객을 태운 25인승 미니버스는 광주에서 화순 방면으로 향했다.

주남마을에 도착했을 무렵, 버스 운전기사는 매복 중이던 계엄군으로부터 정지신호를 받았다.

불길한 예감이 든 운전기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았다.

갑자기 차창 밖에선 공 북는 소리가 들렸고, 승객들은 한 두 명씩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차 안의 승객들이 모두 쓰러진 뒤에야 총성은 멎었다.

다.

7공수·11공수 부대원들은 21일 오후 4시에 전남도청 집단 발포 이후의 광우로 철수한 뒤 화순으로 가는 길목인 주남마을 등에 주둔하며 차량 통행을 봉쇄한 상황이었다.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차내에 승객 18명 중 15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계엄군은 부상자 2명을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총살했다. 일부 시신에선 대검으로 찢린 흔적도 발견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위원회가 실시한 관련자 면담자료에 의하면 모 소령이 부상자를 데려온 것을 보고 질책하자, 11공수여단 62대대 소속 모

중사 등 3명이 부상자를 처리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전남도청 광장 분수대에선 '제1차 범시민 쉼기대회'가 열렸다. 군중이 운집하자, 계엄군은 시내 곳곳에 경고 전단지지를 배포했다.

이 무렵, 시민군 사이에선 총기회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시민군들은 곧장 '학생수습위'를 꾸린 뒤 자체적으로 총기회수 작업에 나섰다. 시민군들은 자발적으로 도청을 찾아가 총기를 반납했다.

오후 7시40분. 계엄군에 붙잡힌 시민군 33명이 최초로 석방돼 전남도청 광장에 도착했다. 시민군들은 환호했지만, 오라가지 못했다.

도청 앞 광장에선 온종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도청 광장에 사망자 이름·인상착의가 적힌 벽보가 나붙었는데, 이를 확인한 유족들의 통곡이었다.

이때 계엄군은 시 외곽을 완전 차단하고 전열을 재 정비하면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3일 광주 상무관에 안치된 시신들. 이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꽃잎처럼 스러져갔다. (5·18 기념재단 제공)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3분 해질 19시 35분 달돋이 17시 29분 달질 03시 37분

따가운 햇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6/31°C
목포	맑음	15/27°C
여수	맑음	18/24°C
나주	맑음	13/32°C
완도	맑음	15/29°C
구례	맑음	14/32°C
강진	맑음	13/30°C
해남	맑음	14/29°C
장흥	맑음	14/30°C
순천	맑음	13/30°C
영광	맑음	14/29°C
진도	맑음	13/28°C
전주	맑음	15/31°C
군산	맑음	13/26°C
남원	맑음	13/31°C
홍산도	맑음	13/20°C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주간날씨
날씨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최저/최고 17/31 16/30 17/27 18/25 17/23 17/26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22일 광주시 남구 봉주초등학교에서 열린 '행복교육 공감 토크 현문축담'에 참석해 광주지역 교사들의 교육현안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사고·입학사정관제 유지”

서남수 교육장관 광주서 교육정책 토론

서남수 교육부장은 22일 “항간에 떠도는 자사고(자유형 사립고)·입학사정관제 폐지는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부작용도 나타난 만큼 학교 생활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KBS광주총국과 봉주초등학교에서 열린 ‘새 정부 교육정책 현장 토론회’에서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하지만 입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는 이미 발표대로 추진하되 내년 이후부터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원칙을 갖고 오는 8월까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입학사정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원래 취지와 달리 사교육의 종과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나타났다”며 “학생의 적성과 끼를 알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자사고 문제만이 우리 고교의 문제는 아니고 자사고 도입 전에도 일반고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다”며 “자

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일반고 교육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해 서 장관은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열심만 뛰기만 하는 상황”이라며 “중학교 한 학기 정도는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자유학기제는 다음 주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 “장난처럼 한 폭력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해 7월께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이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를 다룰 때에는 헌법에 나온 중립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를 다룰 때에는 헌법의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가 반성한다면 문제없이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법 포획 고래 운반 40대 붙잡아

서해어업관리단, 포경 수사 확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2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박모(43)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1일 밤 10시30분경 불법으로 잡아 해체한 고래고기 3t을 화물차를 이용, 충남 서천의 한 통게이트로 운반하다 검거됐다.

고래고기는 1당 5000만~6000만원에 거래된다고 관리단은 설명했다. 관리단은 서해안에서 포경(捕鯨)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불법 포획 고래를 가공 또는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목포=김병권기자 dss6116@

경찰, 김학의 前차관 소환 검토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수사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성접대에 연루된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2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지에 대해 “실무자와 상의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 전 차관의 수사상 신분을 ‘주요 수사 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설명해 왔다.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면 이는 경찰이 그의 관련 혐의를 일점 부분 확인했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조만간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환수

ELYSIA 엘리시아

“축복 받은 집” ...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www.elysia.co.kr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 (나주) ☎ 061-332-1111

- 150석 규모 뷔페
- 100석 규모 연회장
- 50석 규모 연회장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성인	23,000 / 27,000	30,000 / 33,000
초등학생	12,000 / 14,000	15,000 /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 9,000	10,000 /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엘리시아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빅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 코스	가격
A코스	40,000원
B코스	50,000원
C코스	60,000원

주말 가족특선
4인 한상차림 10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 한함)